

## 日 교수 "한국, 재벌·일본 문제서 '치킨 게임' 반복" 주장

기사입력 2019/07/25 11:54 송고

### 후카가와 교수 "日과 갈등보다 세계교역 위축시대 대응이 더 중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과 경제 문제에서 '치킨 게임'을 반복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기업을 공격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다시 대기업을 지원하는 주기가 반복됐는데, 일본과 경제 관계에서도 이런 주기가 되풀이됐다"고 꼬집었다.



### 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강연을 하고 있다.  
2019.7.25 chc@yna.co.kr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대일 무역적자가 클 때는 수입처를 다각화하려고 하다가 관련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본 수입을 늘리는 주기가 반복됐다"며 "경제학자로서 왜 무역적자를 강하게 비판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에는 일본과 양자 무역 갈등보다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시대에 맞서기 위한 다자간 갈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예전에는 세계 총생산(GDP) 성장을 국가 간 교역 성장이 이끌었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교역 증가가 GDP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기에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도 상당 기간 계속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WTO가 와해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일본과 분쟁하기보다는 WTO를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나 WTO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현상화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 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강연을 하고 있다.  
2019.7.25 chc@yna.co.kr

그는 "일본은 쓰나미, 지진 등 재난에 노출돼 있어 늘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며 "경제 통합, 고령화 소득 창출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문제에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면 다른 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어 "일본 정책결정자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보면 완전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라며 "한국이 미국 등에 '일본이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신 일본과 직접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5 11:5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일본

#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 "韓, 미·일과 중국 사이 선택 분명히 해야"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7.25 15:19 | 수정 2019.07.25 1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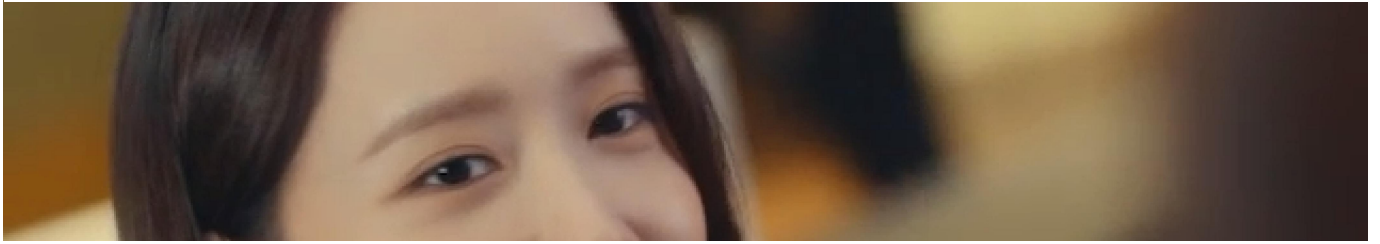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 한국은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발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첨단 산업 기술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한국이 자본과 원천기술, 잘 교육된 고급 인력 등 서로의 강점을 살려 원활히 교류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25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 이코노미조선

##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바로가기



국제경제학자인 후카가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3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연구해 왔다.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다시 와세다대로 돌아와 박사학위를 받고, 야오마상대·도쿄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와세다대 정경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연세대 방문교수를 지냈다. '대전환기의 한국 경제' '한국, 선진국 경제론'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달 초 일본은 대한(對韓) 수출 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표면적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올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민간 청구권도 해결됐으나,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학자답게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았다. 경제 구조가 불투명한 이웃 중국이 투명한 자유무역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일 간 안보·경제 블록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느 쪽의 편을 들려고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일의 편인지, 중국의 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아베 내각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양국 관계가 과거에 얽매이도록 내버려 두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인들 중에는 '과거사 문제로 수십년을 사과해왔는데, 한국에선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국 정부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국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화해·치유 재단이 종종 언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재단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엔(약 109억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추진됐다"며 이달 초 재단에 대해 해산 절차를 완료했다.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후카가와 교수는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룩한 예로 미국과 일본을 꼽았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때 핵폭탄 두 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지만, 일본이 한때 적국(敵國)이었던 나라와 우방(友邦)으로 거듭난 것은 일본이 그 만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 하며 한·일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후카가와 교수

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운을 떼 뒤 "한국과 일본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이지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닌 듯 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日와세다대 교수 "일본 수출규제, 중국 견제 의도 있어"

| 추우진 인턴기자

2019.07.25 14:5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514373499762&type=1>

기사주소 복사

##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양국 간 대화로 신뢰회복 해야"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한일 무역갈등에 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동맹 차원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 강연회에서 "SK 등 한국기업이 중국에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일본산 반도체 원재료가 중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가 관련 원재료를 통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힌다.

후카가와 교수는 "미국에서 최신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동맹국들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이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화웨이 기술을 일본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 제조업체를 일본 조달 프로젝트에서 모두 제외했다"며 "한국 입장은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신뢰에서 찾았다. 그는 "일본에서 신뢰는 모든 것"이라며 "개인적 관계 차원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 잃었다는 것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는 (신뢰 문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은 미디어에 의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신뢰 회복 방법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보복이라고 말하기보다 한일 양국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카가와와 교수 "한·일 신뢰 회복 쉬운 문제 아 냐..그러나 대화는 해야"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7.25 15:14 | 수정 : 2019.07.25 15:59

일본내 대표 지한 경제학자,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서 밝혀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간의 갈등이 미디어를 통해 감정적으로 왜곡 과장,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신뢰 회복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 내각부 재정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일본내 대표적 '지한(知韓)' 경제학자다.

우선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후카가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는) 한·일간의 시각차가 크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처음 수출규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본

은 한국과의 '신뢰'가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감정적 측면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수출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경쟁심이 있다"면서 "이는 양국의 시각에서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지금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하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은 동맹국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재 협상 중인 미·일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맹국가간) 통합적 성격이 있다. 미국의 무역블록이자 국제 안보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TPP에 동참하면 한·일간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리먼 사태(2008년)이후 위축된 교역이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점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혁명과 국가간 데이터 이동이 활발해지는 점 △한·일의 급속한 고령화 등 여러 공통이슈를 거론하면서 "한·일이 양국간의 문제를 넘어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취소](#)

# 日경제학자 후카가와와 교수 "한·일 갈등 감정적 왜곡·과장 많아 신뢰 회복 쉽지 않지만 대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7.25 17:26 | 수정 : 2019.07.25 17:45

日경제학자 후카가와와 교수 강연

"미래 고민하며 새롭게 협력해야 한국의 TPP 동참도 기회될 것"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한·일 간의 갈등이 미디어를 통해 감정적으로 왜곡 과장,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신뢰 회복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 내각부 재정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일본 내 대표적 '지한(知韓)' 경제학자다.

우선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후카가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는) 한·일 간의 시각차가

크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처음 수출규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본은 한국과의 '신뢰'가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감정적 측면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수출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경쟁심이 있다"면서 "이는 양국의 시각에서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지금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은 동맹국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재 협상 중인 미·일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맹국가 간) 통합적 성격이 있다. 미국의 무역블록이자 국제 안보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TPP에 동참하면 한·일 간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리먼 사태(2008년) 이후 위축된 교역이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혁명과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활발해지는 점 △한·일의 급속한 고령화 등 여러 공통이슈를 거론하면서 "한·일이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포토]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기사입력 2019.07.25 09:11 최종수정 2019.07.25 11:09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포토]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기사입력 2019.07.25 09:17 최종수정 2019.07.25 11:09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포토]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기사입력 2019.07.25 09:11 최종수정 2019.07.25 11:10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포토]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기사입력 2019.07.25 09:11    최종수정 2019.07.25 11:10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2602100358054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2602100358054001)

## "韓·日 전혀 다른 관점... 직접 대화해야"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mailto:bshwang@dt.co.kr) | 입력: 2019-07-25 16:54

일본내 한국 전문가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방한

"韓 유교사회의 도덕주의 강조

日 법적인 측면서 문제 접근

아베 수출규제 조치 부적절

과거에 얽매인 한국도 문제"



한일관계 개선 키워드는...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일본 정책 결정자가 신뢰를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끝내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이 대외에 '일본이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신에 일본과 직접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일본 내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와세다대 정경학부 박사 출신으로 1980년대 이후 3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연구해왔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며 양국 간 신뢰의 괴리감을 연거푸 설명했다.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추천해 화제를 모은 '팩트폴니스(Factfulness)'란 책을 인용하며, "책의 메시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왜곡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에는 큰 괴리감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신뢰 문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서로 다른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가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일본과 직접 대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정확히 원하는 게 뭐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으며,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K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일본산 반도체 원재료가 중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가 관련 원재료를 통제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가운데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어느 편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한일 양국이 화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과거사에 얽매이는 한국 정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체제가 와해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분쟁하기 보다는 WTO를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같등하기 보다



는 협력할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쓰나미, 지진 등 재난에 늘 노출돼 있어 늘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며 "경제통합, 고령화, 소득 창출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경제문제에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월드 > 동북아

# 후카가와 "한일갈등 왜곡·과장돼...韓, 맹목적 애국심 만연"

IGE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조찬 강연회 "법치주의 국가 日, 불매운동·여행 보이콧 안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7-25 12:48 송고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 뉴스1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기사를 쏟아낸 양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양국 정부와 언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중심에는 '신뢰 관계 상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자문 활동을 한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주제 조찬 강연회에서 최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본 내 '한국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교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추천해 화제를 모은 책 '팩트풀니스'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10가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한일 갈등을 진단했다. 양국 언론이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간극 본능',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부정 본능' 등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얘기도.

그는 한국 언론인과 관련해 '일본 사회를 잘 모른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일본 내 혐한 기류를 조장하는 것은 60대 후반 70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 언론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전성기였던 시절에 성장한 이들은 여전히 일본이 선두에 서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기러기 편대 비행론'을 주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유교사회에서의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적인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시행한 건 수출규제(일본 정부에선 수출관리로 표현) 강화 조치인데, 한국은 이를 수출 제한 혹은 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일 갈등은 사실 자기만의 스토리를 쓰는 양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강연 내내 '신뢰'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신뢰를 잃으면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일본이 얼마나 신뢰를 중시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이민 3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예일대 교수의 이론을 가져오기도 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돼지만,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구성원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전략물자' 현지화 시도도 20년간 모두 실패했다고 후카가와 교수는 설명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일과 민간·외교의 일은 구분 지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맹목적인 애국심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 내에서 일본(계 자본)이 신용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신뢰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는 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막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다자간 접근 방식과 대화를 제시했다. 그는 "양자간 대화가 없으면 정치적 협상도 불가능하다"며 "일본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건 뭔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쟁점)은 무엇인가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 경제

# "日 수출 규제는 韓 신뢰 상실 탓...한국이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여"

등록 2019-07-25 18:23:01 | 수정 2019-07-26 00:03:13

후카가와 유키코 日 교수, "신뢰 회복 쉽지 않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

25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서 밝혀



25일 오전 후카가와 유키코(왼쪽)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했다. (뉴스한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이 신뢰를 상실한 데 따른 것이지만 한국 언론이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였다고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주장했다. 일본의 저명한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후카가와 교수는 25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에서 '한일 무역 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이뤄졌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추천한 책 '팩트풀니스(한스 로슬링)'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진단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주요 메시지이며 여기에 10가지 작동 기제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후카가와 교수는 책이 소개한 기제 가운데 '간극 본능'을 설명하며 "한국이 좀 더 과거 유교주의적·도덕적인 시기로 돌아가는 반면 일본은 법률을 준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직선본능'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아직도 일본을 따라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특히 경쟁심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규모와 크기를 과장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크기본능'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수출 통제·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수출 '금지'나 수출 '제한'으로 접근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양국의 수출입 관계가 악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화 본능' 항목에서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이 처음 이런(수출 제한 조치) 정책을 발표했을 때 한국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한국 미디어는 (일본 전 범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기자 주) 타이밍상 정치적 보복으로 받아들였고 일본 미디어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신뢰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치적 보복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로 인해 사안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국가 및 외교적 차원의 일과 민간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운명 본능'을 말하며, "하나의 편협한 시각으로만 볼 때가 있는데 한국에는 맹목적인 애국심이 있고 일본

에는 독단적인 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난 본능'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강제 노동 문제에 있어 한국에 보상했거나 보상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이와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다급함 본능'을 감정적인 태도로 치환해 "한일 간에 감정적인 면을 미디어가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면서 언론이 과거처럼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해석하려 하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런 언론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언론 환경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이 선두에 서고 다른 아시아 국가가 따라가는 이른바 '기러기 편대 비행론'은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언론인들이 이를 따른다는 지적이다.

'팩트풀니스'에 기대 한일 관계를 분석한 후에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1996년에 펴낸 책 '트러스트'를 꺼내 말을 이어갔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 책에서 미국과 일본·독일이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신뢰 수준이 높은 동일한 경제 유형에 해당한다고 분류했고 중국·한국·러시아 등을 저신뢰국가로 분류했다"며, "저신뢰국가의 특징은 소수의 막강한 국영기업과 대다수의 힘없는 중소기업이 산업적으로 분리됐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한국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1년 후 시의 적절하게 펴낸 책이다. 그가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일본이 신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치킨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의 국내화를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지만 한국에서 그렇지 못



한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신뢰도가 낮다는 맥락에서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주로 일본을 표적으로 수입 다각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이 많은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지만 일본과는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일 무역적자가 클 때는 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하다 관련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게 한일 경제의 모습"이라면서도 "너무한일 관계 현안에만 초점을 맞추면 4차 산업혁명의 이슈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 관계에서 대화가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전략 물자 품목을 두고 협정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이 진실인지 재무성이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의 대화 창구가 20년 동안 약해지면서 정보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신뢰도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 회복은 쉽지 않지만 대화는 할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대화를 제의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진·쓰나미 등 재난을 겪는 일본인들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봐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과거사에 대한 고통을 일본이 알아줘야 한다고 하지만 경제통합이나 고령사회 소득창출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과거사 문제는 복잡하기에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

취소

인쇄하기

# "한·일 갈등 너무 매몰돼...더 큰 글로벌 위기 고민해야"

'지한파' 경제·금융 석학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한·일 갈등보다 세계교역 위축이 더 큰 위기"  
"한·일 관계, 완전히 새로운 시각서 볼 필요"

등록 2019-07-25 오후 4:48:59  
수정 2019-07-25 오후 4:48:59  
김정남 기자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일 양국이 너무 갈등에 매몰돼 있습니다. 세계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생존해야 할 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자문 활동을 한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금융 석학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과거에는 세계 교역 성장세가 경제를 이끌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교역 성장률이 GDP 증가율보다 낮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지향적인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도 있다”고 했다. 실제 혼다, 도요타, 소니 등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주요 기업들은 10월 말로 다가온 브렉시트 기한에 맞춰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같은 현상들을 두고 “한·일 갈등보다 더 큰 위기”라고 정의하면서 “최근 두 나라가 (미래를 도외시한채) 갈등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후카가와 교수는 아울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한국에 와서 인공지능(AI)를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한국이 AI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벤처 혁신 기술을 키울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는 와중에 소득 주도 성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을 두고 “또다른 불편한 점”이라고 했다. 그는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존재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며 “WTO가 와해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분쟁하기보다는 WTO를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번 갈등이 과장·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유교주의와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 차이가 크다”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이 한국 버렸다고 여기기 때문"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7.25 16:10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한미동맹 균열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는 인식이 일본 우파 세력과 언론인 사이에서 퍼지면서 사안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일본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내 대표적 '한국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60~70대 베이비붐 세대와 일부 언론은 그렇지 않다"며 "그들은 여전히 선진국 일본이 앞장을 서고 그 뒤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따라가는 '기러기 편대론'에 빠져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들은 일본 전성기 때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이어서 여전히 제조업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제조업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국 화웨이 규제 등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동맹 약화 인식, 제조업에서의 경쟁의식과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치권의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 그리고 미디어와 SNS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이 결합된 것(이 수출규제)”라고 진단했다.



후카가와 유기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강연을 하고 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복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은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맹목적 애국심 바람이 불고 있고 일본은 위안부 등 정치적 사항과는 관련이 없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중재위원회 구성도 한국이 거절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여서 한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계 은행이 대출자금을 회수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 은행이 정부의 입김에 대출을 막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쓴 소리도 빠지 않았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는 ‘신뢰를 잃었다’면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한국은 일본이 얼마나 신뢰를 중시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그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뢰가 부족해 성공하지 못했다”며 “마치 한국 정부가 대기업을 공격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다시 대기업을 지원하는 ‘치킨게임’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한국정부의 수익다각화는 주로 무역적자가 큰 일본을 표적으로 이뤄졌다”며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와해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일본과 분쟁하기보다는 WTO를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이 기존의 수출지향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과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혁신 벤처산업이 내수산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회의적”이라며 “가계 부채와 고령화,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속가능할지 의문이고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홀로 살아남기 힘든 만큼 서로 건전한 상호 보완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호** 기자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2502109958054008](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2502109958054008)

## “일본서 ‘신뢰 할 수 없다’는 말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다’는 것”...“한일 문제 풀려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필요”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 | 입력: 2019-07-25 15:41

"(한국은) 일본이 신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책결정자가 신뢰를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내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추천해 화제를 모은 '팩트폴니스(Factfulness)'란 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설명했다.

그는 "책의 주요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책에 나온) 첫번째 강조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괴리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사용하며 양국간의 괴리감을 설명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과거 유교사회에서의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적인 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이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 예일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이론을 가져오기도 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돼지만,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구성원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균형적으로 있는 이유는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라면서 "저신뢰 국가들은 신뢰관계가 약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교류 발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전략 물자' 현지화 시도도 20년간 모두 실패했다고 후카가와 교수는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대기업과 일본 문제에서 있어서 '치킨게임' 방식을 취해왔던 것도 제기했다.

후쿠가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기업을 공격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다시 대기업을 지원하는 주기가 반복됐는데, 일본과 경제 관계에서도 이런 주기가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대일 무역적자가 클 때는 수입처를 다각화하려고 하다가 관련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본 수입을 늘리는 주기가 반복됐다"며 "경제학자로서 왜 무역적자를 강하게 비판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내에서 일본계 자본이 신용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신뢰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는 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막는 일은 없다"면서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그는 정치적 협상과 다자간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미국에 일본이 보복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으며,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카가와 교수는 "WTO가 와해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일본과 분쟁하기보다는 WTO를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나 WTO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현상황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쓰나미, 지진 등 재난에 노출돼 있어 늘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며 "경제 통합, 고령화 소득 창출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문제에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면 다른 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일 무역갈등을 넘어서 :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강연에서 말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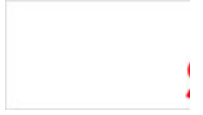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정하중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력의 새로운 지평' 강연을 하고 있다. 2019.7.25

chc@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7/25 09:01 송고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서울=연합뉴스) 정하중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력의 새로운 지평' 강연을 하고 있다. 2019.7.25

chc@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7/25 09:00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서울=연합뉴스) 정하중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한일 무역갈등을 력의 새로운 지평' 강연을 하고 있다. 2019.7.25

chc@yna.co.kr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

# 미·중 사이 한국은 누구 친구냐, 일본이 경고사격 날린 것

[중앙선데이] 입력 2019.07.27 00:21 수정 2019.07.27 06:39

## 한·일 갈등, 일본의 속내 - 후카가와 교수



25일 세계경제포럼 강연 참석차 한국을 찾은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나빠졌으며 민간 부문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제무역 질



과정에서 한국이 따돌림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상조 기자

“한국은 누구의 친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 답할 건가. 자칫 국제적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속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의 한·일 무역갈등은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지만, 근본적으로 무역전쟁에서 파생된 국가 간 편가르기 차원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피아식별을 위해 한국에 일종의 경고사격을 날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 앞서 만난 그는 1시간 남짓한 인터뷰 ‘매우·대단히’ 등의 말을 30여 차례나 사용하며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심각성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 남북 문제 풀리면 다 해결 불과

일본 정부, 민간 자산은 침해 안 해  
한국 신뢰 깨져 전략물자도 의심  
그래도 수출규제 등은 극히 이례적

일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단 관망  
한국인 채용 중단, 파트너십 철회 등  
민간선 자발적 거래 단절 가능성

한국은 미·중 사이서 애매한 태도  
자칫 고립되거나 따돌림당할 수도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양국 간에 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은 좀 더 심각하다. 발단은 헌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소됐다는 2005년 판단을 뒤집은 데서 비롯됐다. 한국에 대한 일본 신뢰가 무너졌다. 그간 한·일 관계에 피로감이 누적된 측면도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일본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 한국 문제가 아니어도 자민당이 선거였다.”

## **일본은 왜 한국이 안전보장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 전후 일본 정부는 기업이 아무리 비도덕적 행동을 해도 민간 자산 침해한 적이 없다. 국가 신용의 기본이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 때문에 전략물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디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카드를 꺼낸 것은 극히 이례

##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대일 정책에서 더 강**

“외교란 경제·문화 등 여러 화두를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현재 한·남북 대화 한 가지에만 천착한다. 남북 문제를 풀어야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발상은 희망에 불과하다. 한국의 태도에 일본은 물론 미국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의 중재

역할을 자처하지만 미국은 글로벌 이슈를 신경 쓰는 나라다. 외교 포괄적 게임이다.”

### **수출규제를 앞두고 미·일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나.**

“물론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희망하기 때문에 일본도 동맹국으로서 뜻을 밝혔을 것이다.”

### **일본이 한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더는 논의가 존재할 것이다. 일본은 5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약속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과도 비슷한 문제가 걸려 있어 굽히지 않을 것이다.”

### **한국 기업을 규제하면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지 않나.**

“한국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재 국산화를 할 것이고, 다른 공급처를 찾을 것이다. 일본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국에 일관성 담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 문화는 매출보다 규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 이슈가 있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

## 일본이 추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 앞으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은 기 국가 단위 사이의 공공 영역이 외부로부터 침해 받는 데 굉장히 C 자발적으로 한국인 채용을 중단한다든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권 있다.”

##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영향을 미칠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한·일 문제는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제: 2025를 겨냥해 지난해 전략물자 유출 관리 규정을 정했는데, 여기 동맹국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화웨이 제재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미·일은 밀착 관계인데 비해 한국은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다.”

## 수출규제 미·일 간 사전 교감 있었을 것

##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 아닌가.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중국 중 양자택일을 선택받지 않기 위해 : 펼친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

때문에 어느 쪽에도 끼기 어렵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저고립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WTO에서의 협상력을 자신하고 있지만, WTO는 올해 12월 기로에 놓인다. WTO 체제는 애초에 미국·유럽 등 동맹체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보 약정이 느슨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이스라엘 등이 참여하며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졌다. 미국은 국가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무역보다 안보를 더 중시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많은 나라가 연대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은 누구의 친구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 WTO가 붕괴하면 한국은 대응 카드가 없어진다.”

##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중·일 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북·미 협상이 펼쳐지면 한국의 역할도 수도 있다. 외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와의 게임이기 때문에 저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

## 보호 무역 득세, 분쟁 조정 한계...WTO 벼랑 끝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상설 기구 격상시켜 1995년 출범했다. 미국 정부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47년부터 50년간 공을 들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WTO 체제 속에 글로벌 자유무역은 꽃을 피웠고, 1990~2000년대 세계 경제는 유례 없는 호황을 맞

그런 WTO가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조정의 한계를 드러내며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우선 WT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무역 분쟁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부터 존폐 기로에 놓였다. V 상소기구 최종심 상급위원회는 7명 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나머지 3명 중 2명도 올해 12월 임기가 끝나, 중국 출신 수석위원 1명만 남게 된다. 위원회 3명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소기구는 역할이 정지된다.

공석이 생겨도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WTO의 산파 역할을 한 미국의 반 때문이다. 수석위원 선임은 164개 WTO 회원국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수석위원 임명을 저지하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리카르도 라미레스 에르난데스 WTO 상소기구 전 수석위원은 지난해 5월 고별 연설에서 "WTO 서서히 목 졸려 죽고 있다"고 평가했다.

WTO는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태양광 패널·풍력탑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TO 탈퇴 가능성 언급이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WTO를 탈퇴하면 다른 나라들은 대미 관세를 마음껏 올릴 수 있지

무역법 301조(수퍼 301조) 등 미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 국제사회 여론도 대체로 WTO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의 분쟁해결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보호무역주의 반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마이클 오설 크레디트스위스 전 최고투자책임자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통화 행동주의(monetary activism)', 부의 양극화 등 세계화와 작별해야 할 때"라며 "세계 경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중심 아시아 등 세 권역으로 나뉘며 WTO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역할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1958년 도쿄 출생으로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와세다대에서 학위를 받은 후 30년 넘게 동아시아 경제와 제도, 산업 발전을 연구해 지한파 경제학자다. 한국 학계·재계와 폭넓게 교류하고 있으며 동북(관계 학술 행사의 단골 명사로 인기가 높다. 현재 일본 총리 관저 산하 아시아게이트웨이 전략회의 7명 멤버 중 하나로 활동 중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쓴소리와 조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관련기사

**일본의 계산된 경제 도발...대법 판결 정당성 세계에 알려야**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 “공통의 위험 맞서려면 협력 필요”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갈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발상을 전환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의 일성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는 거절하였고 7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의 경우 한국이 일본과 경제 문제에서 ‘치킨 게임’을 반복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실제적이고 거대한 공통의 위험보다 양국 간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정치적 해석, 양국 간의 문화와 인식의 격차, 미디어와 SNS를 통한 과장 등으로 인해 확대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자문 활동을 한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일본 내에서 ‘한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추천해 화제를 모은 책인 ‘팩트풀니스’를 소개하면서 10가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한일 갈등을 진단했다.

“양국 언론이 사태 악화시켰다”

“한국은 과거 유교사회에서의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적인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한일 양국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양국 언론이 세상을 둘로 나뉜다는 ‘간극 본능’과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부정 본능’ 등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한일 갈등은 사실 자기만의 스토리를 쓰는 양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시행한 것은 수출규제(일본 정부에서는 수출관리로 표현) 강화 조치인데 한국은 이를 수출 제한 혹은 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사를 쏟아낸 양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일본 내 협한 기류를 조장하는 것은 60대 후반 70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 언론인이다. 일본이 전성기였던 시절에 성장한 이들은 여전히 일본이 선두에 서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기러기 편대 비행론’을 주창하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양국 정부와 언론이 평행

선을 달리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어느 편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를 제시했다.

예컨대 중국의 한국 반도체공장은 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관리하려 할 것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선명하데 비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모호해 보인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

“한국이 대일 무역적자가 클 때는 수입처를 다각화하려고 하다가 관련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본 수입을 늘리는 주기가 반복됐다. 경제학자로서 왜 무역적자를 강하게 비판하는지 의아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기업을 공격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다시 대기업을 지원하는 주기가 반복됐는데 일본과 경제 관계에서도 이런 주기가 되풀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일본(또는 일본계 자본)이 신용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신뢰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는 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막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을 겨냥해도 국가 차원의 일과 민간·외교의 일은 구분을 지어야 하며 한국에서는 맹목적인 애국심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중심에는 ‘신뢰 관계 상실’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만큼 한·일이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신뢰’를 강조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신뢰를 잃으면 관계 단절을 의미하며 한국은 일본이 얼마나 신뢰를 중시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그 실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전략 물자’ 현지화 시도도 20년간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한국이 미국 등에 ‘일본이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신 일본과 직접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정책결정자들이 ‘신뢰를 잃었다’고 보면 완전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양보할 수 없는 쟁점(레드라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양자 간 대화가 없으면 정치적 협상도 불가능하다.”

다자간 접근 방식과 대화를 제시하는 그는 예전에는 세계 총생산(GDP) 성장을 국가 간 교역 성장이 이끌었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교역 증가가 GDP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기에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 한국에는 일본과 양자 무역 갈등보다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시대에 맞서기 위한 다자간 갈등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WTO는 체제 자체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외 교역의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악화와 WTO 체제의 위협, 글로벌 교역 악화, 4차 산업 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맞아 일본과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해 국제 사회에서 WTO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

그는 이같이 경고하면서 WTO가 와해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계 경제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WTO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한국은 현재 고령화의 위기, 세계 경제 차원의 문제, 4차 산업 등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4차 산업을 내수 시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기를 잘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때로는 협력하면서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은 쓰나미와 지진 등 재난에 노출돼 있어 늘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면서” 경제 통합, 고령화 소득 창출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문제에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면 다른 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

프로필

- ▲ 1958년 생
  -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
  - 예일대학교 국제경제 석사

▲ 주요 경력

- 일본무역진흥공사 연구원
-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도쿄대 교수
- 내각부 재정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산업연구원 객원연구원
- 와세다대학교 교수